



#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 소식

발행인 지회장 김경현

홈페이지 ourofficeunion.org · 인스타그램 @mobisofficeunion · 문의 010-8167-5527

CREATING THE FIRST PRECEDENT TOGETHER

## 회사가 정하기 전에 우리가 기준을 세웁니다

램프는 시작입니다. 다음은 어디인가? 4월 15일 정식 출범 후 한 달의 기록입니다.

2026.01.27

OP Mobility 매각 MOU 체결

2026.03

범퍼사업부 매각 검토 보도

2026.04

사업부 구조 재편 본격화

5.13 D-6

단체교섭 일정 요구 · 램프부문 특별교섭

핀플 인터뷰  
「근로자의 날 특집」  
2026.05.02

" 한 회사 한 사업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자는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 이게 승계거부권입니다."  
— 김경현 지회장 · 박창현 수석부지회장



영상 보기

DEMANDS

DEMAND 01  
미래차 핵심기술  
해외 매각 중단

DEMAND 02  
밀실 매각 중단  
노조와 대화하라

DEMAND 03  
일방적  
강제 전적 거부

DEMAND 04  
설명 가능한 기준  
예측 가능한 절차

### 램프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 확인된 사실

- 사전 설명·의견 수렴 절차 없이 본계약 협상 진행
- 강제 전적 통보 가능성, 고용 승계 조건 미공개
- 핵심 미래차 기술의 해외 이전 우려

#### 왜 다른 BU에도 중요한가

램프 한 곳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선례는 가장 효율적인 매뉴얼이고, 노동자 입장에서 선례는 가장 위험한 출발점입니다. 누가 쓰느냐가 다음 한 분기를 결정합니다.

### 강제 전적, 다음 BU의 선례가 됩니다

#### 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 승계거부권

- 대법원 판례(1994.6.28 선고 93다33173) — 영업양도 시 근로자가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 거부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는 원래 회사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 이게 승계거부권, 우리가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 번 사전 협의 없는 통보가 통과되면 그 방식이 다음 BU의 표준 매뉴얼이 됩니다. 범퍼·전동화·모듈·전장 모두 같은 재판 압력 안에 있습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다음 BU에서도 못 막습니다.

### ENGAGEMENT LOG · 한 달간 우리 요구 / 회사 대응

일자	우리 액션	회사 대응
04.20	'가입 통보·교섭 요청', 공문	공식 회신 없음
04.22	램프 매각·강제 전적 거부 공문	공식 회신 없음
04.23	첫 결의대회 (마복)	공식 대응 없음
04.29	본사 1차 교섭 요청·면담	회의실 거부→사장실 직행 면담 "검토 중" 반복
04.29~	본사 앞 1인시위 (9일차 지속)	공식 입장 없음
05.04	'5/13 단체교섭·램프 특별교섭' 공문	대응 없음

### WHAT IF · 같은 방식이 다음 BU에 반복된다면

왼쪽 LOG의 회사 대응 패턴이 범퍼·전동화·모듈·전장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 1 사전 설명·의견 수렴 없는 MOU 체결 — 동의 절차 부재
- 2 거부 공문 → 공식 회신 없음 — 침묵으로 시간 끌기
- 3 회의실 배정 거부 → 사장실 직행 면담 — 절차 정상화 자체가 투쟁
- 4 "확정 사안 없음·검토 중" 반복 — 그 사이 본계약 협상 진행
- 5 사후 통보 · 강제 전적 — 잔류 의사 묻는 절차 없음

### 왜 가입해야 하나

- 기존 노조는 책임급 이상 사무연구직 가입을 받지 않았습니다
- 성과평가·전환배치·해외파견 같은 사무직 고유 이슈는 교섭 테이블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 개인 건의로는 출어집니다 — 법적 구속력 있는 교섭 통로가 필요합니다

### 법이 우리 편입니다

- 노조법 제81조 — 노조 가입·활동 이유 불이행은 부당노동행위
- 노조법 제90조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설립 신고와 동시에 간부 명단이 노동청에 접수 → 사측 보복은 즉시 법적 대응

### 한 BU 일이 아닙니다 — Membership Mix

타 부문 조합원이 램프BU보다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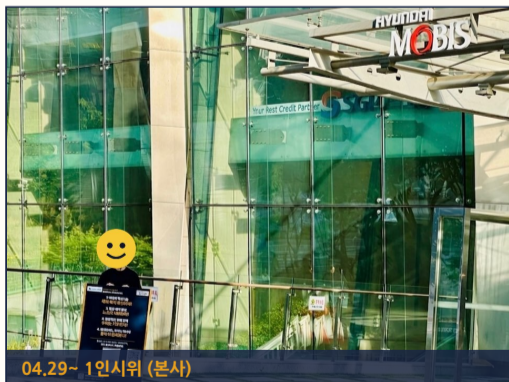
램프BU

타 부문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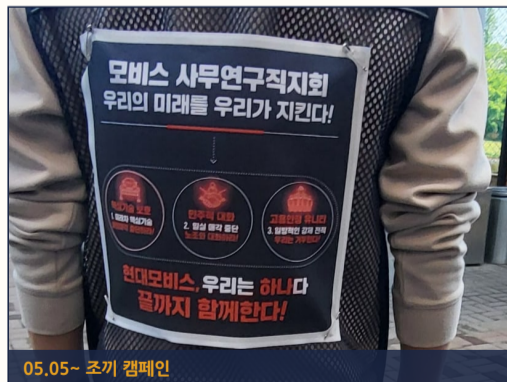
\* 정확한 인원·비율은 명부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모듈·전동화·전장·범퍼·경영지원 등 같은 사업재편 신호 안에서 같은 결정을 내린 동료들이 매주 함께 서고 있습니다.



04.23 결의대회 (마복)



04.29~ 1인시위 (본사)



05.05~ 초기 캠페인



04.16~ 점심 홍보



### 주주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 사람이 본질입니다

램프사업부의 진짜 가치는 공장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램프 설계·광학 모듈·SW 융합을 다루는 연구개발 인력의 두뇌가 곧 사업의 본질입니다. M&A에서 매수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 핵심 인력이 그대로 따라오는가.

그 두뇌가 동의 없는 강제 전적에 저항하거나 승계거부권을 행사하면, 매각 대상은 곁테기에 가까워집니다. 매수자는 즉시 매각가를 깎거나 거래 자체를 재검토합니다.

절차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회사 가치를 깎는 일이 아닙니다. 인적 자본이 제대로 평가받게 만드는 — 주주에게도 합리적인 일입니다.

##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지킨다



#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 소식

발행인 지회장 김경현

홈페이지 ourofficeunion.org · 인스타그램 @mobisofficeunion · 문의 010-8167-5527

SPECIAL · 4것으로 보는 Q&A

## 솔직히 묻고 솔직히 답합니다

비조합원 동료가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 네 개. 떠도는 말 말고, 사실대로 짚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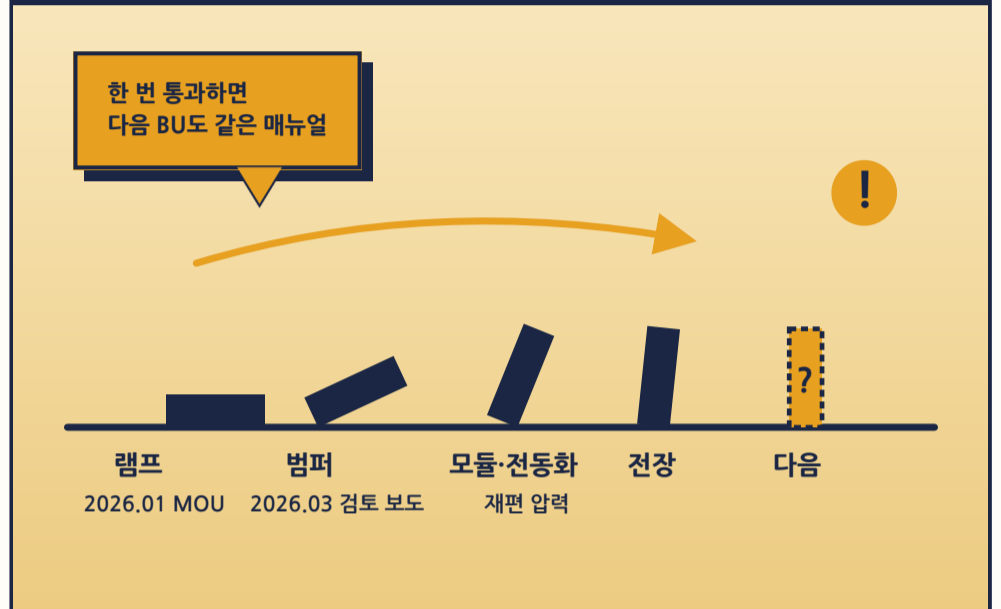
### 1 "가입하면 회사에 바로 알려지나요?"



#### FACT

아니요. 본인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명단은 명부 관리자 외엔 접근 불가, 노조 가입 사실을 사측에 자동 통보하지 않습니다. 노조법 제81조는 가입 이유 불이익을 부당노동행위로 명시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90조).

### 2 "램프BU 일인데 우리도 가입해야 하나요?"



#### FACT

한 BU의 일이 아닙니다. 램프에서 사전 협의 없이 통과되면 그 방식이 다음 BU의 표준이 됩니다. 범퍼는 이미 매각 검토 보도, 모듈·전동화·전장은 그룹 차원 재편 압력 안에 있습니다. 지금 시점 타 부문 조합원이 램프BU보다 많습니다.

### 3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 FACT

1.27 MOU 체결, 본계약 협상 진행 중. 본계약 전이 사전 협의·잔류 의사 확인·재배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5.13 첫 단체교섭 일정 확정을 요구한 상태이고, 이 시점이 지나면 회사의 "사후 통보" 패턴이 굳어집니다.

### 4 "혼자 가입하기 부담스러워요"



#### FACT

책임급도, 매니저급도, 본사·마북·의왕·서산·창원 어디서든. 4.15 출범 이후 매주 명단이 늘었고, 현재 타 부문 조합원이 램프BU보다 많습니다. 4.29부터 본사 앞 1인시위는 연속 진행 중. "혼자가 아니다"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 4것 다 보셨다면, 마지막 한 것은 당신입니다.

## 같이 시작합니다 · 지금 가입하세요

가입 자격 연구원~책임연구원, 매니저~책임매니저 / 사업장·사업부 무관 · 조합비 가입비 30,000원(1회) + 월 50,000원 정액  
신청 ourofficeunion.org/join (1분 내) · 문의 010-8167-5527

